

Vol. 20 No. 952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April 12 2024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남과 비교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 출산율 저하 초래 입증

세종대 김성은 교수, 미경제학리뷰 논문에서 경제학적으로 입증
 부유층 사교육비 지출 감소가 저소득층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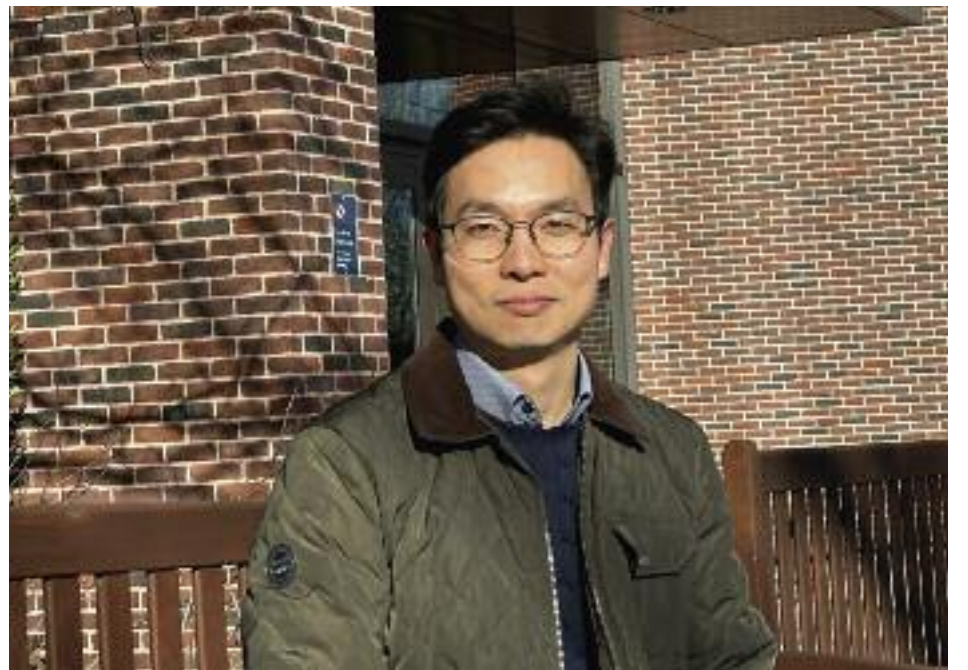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남부럽다. 남부끄럽지 않다.” 언제부터인가 ‘남’ 이 기준이 되어버린 한국에서 ‘남’ 과의 비교는 비싼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 최저수준 출산율이 사교육비 지출시 남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결정과 직접적인 연관된다는 사실이 경제학적으로 밝혀졌다.

미 경제학회 리뷰(American Economic review, AER)지에 6월 발표될 예정인 김성은 세종대 교수의 논문은 한국인의 사교육비 지출이 다른 사람과 비교에 의해 결정되고, 이로 인해 출산의 기피로 이어지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증명했다. 1911년 창간된 미경제학회 리뷰는 세계 유수의 경제학 저널 중의 하나다. 미 경제학

리뷰에 한국인 교수의 논문이 채택된 것은 김성은 교수가 3편째다.

김성은 교수는 논문에서 “남과 비교하는 외부성(Externality)이 없다면 출산율(Fertility rate, 한 여성이 가임 기간 출산하는 전체 자녀 수)은 28%나 높아지고 최저 소득층의 무자녀 가정도 현재의 5%에서 단 1% 이하로 떨어졌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논문은 한국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남을 의식하는 비교심리와 연결한 최초의 연구다.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자녀양육의 부담, 가족내 성 불평등, 자녀 교육환경과 미래 불확실성, 한국사회에 작용하는 경쟁심리와 과잉과 시의 사회적 사회적 압력 ▶▶6면으로 계속



지난 3월 말 모교인 월렘 소재 브랜디스 대학원에서 개최된 세미나 발표차 보스톤을 방문한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가 모교 국제경영대학원 건물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김교수의 논문은 권위있는 경제저널인 미경제학리뷰에 6월 게재될 예정이다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특별한 보상. 전문적인 권리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애널리스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권유
 * 포지티브 리얼리티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 22대 재외총선 또 미주 최고 투표율 69.9%, 그런데...

1천명 이상 등록유권자 미주 투표소 중 가장 높아 과거에 비해 현격히 낮은 등록자 수도 눈에 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보스톤 투표율이 69.9%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미국내 등록자수 1,000명 이상인 투표소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선관위는 투표율을 등록 유권자 수 대비 투표자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보스톤은 10명 중 7명이 투표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재외선거 투표율은 62.8%로 역대 최고치였다. 등록된 유권자 14만7,989 가운데 9만2,92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다. 제20대 41.4%, 21대 23.8%의 초라한 성적표에 비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보스톤은 높은 투표에도 불구하고 역대급으로 낮은 등록 유권자 수로 그 의미가 다소 퇴색했다. 22대 등록 유권자는 1007명(단기체류 889, 영주권자 118명)으로 21대 등록 유권자 1662명(단기 1487, 영주권자 177), 20대 등록 유권자 1364명(단기체류 1066, 영주권자 248)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같은 맥락에서 재외선거 투표율을 두고 역대 최고 선거율이란 말이 나오지만 전체 유권자 수의 4.7%에 그친 선거 참여율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18세 이상 재외선거 유권자는 197

만4,375명으로 실제 선거에 참여한 선거 참여율은 4.7%이다.

당장 조선일보 재외국민 1인당 투입되는 비용이 한국내 유권자들에 비해 30-40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50배보다는 적어진 것이지만 여전히 '고비용 저효율'이란 지적이다.

물론 이는 과도한 단순비교란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물류의 라스트 마일(Last mile)처럼 재외선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땅에서만 투표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투표의 단순비교는 삼가야 한다.

따라서 '고비용 저효율'란 단어를 선택하는 대신 '라스트 마일 유권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국내외 언론은 우편투표 도입을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지만 한국의 국회는 유불리를 점치며 느리게 반응하고 있다.

다시 바라보면 재외 유권자는 가장 비싼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소중한 한 표를 결코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재외유권자의 책임으로 남는다.

bostonkorean@hotmail.com



"북한의 인권" 북한이탈주민 통일 강연회

평등, 탈북민 초청 강연회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평등 오 있다.
 은혜 간사, 편집부 = 민주평화통 평등 측은 "평화와 번영을 위
 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회장 한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강연
 한문수)는 오는 4월 14일 일요일 회이며 북한 인권의 현실과 과제
 오후 4시에 보스톤 한인교회ECC 를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소통
 홀에서 "북한의 인권"을 주제로 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를 개최한다. "북한의 인권" 북한이탈주민
 프리덤 스피커스 인터내셔널 통일 강연
 (FSD) 북한인권 단체 대표인 케이 일시: 2024년 4월 14일 (일) 오
 시 라티그(Casey Latigue Jr)와 후 4시~6시
 탈북민 영어 말하기 대회 우승자 장소: ECC Chapel, 보스톤 한
 가 전하는 북한 인권의 실상을 들 인교회
 을 수 있는 이번 강연회는 지역사 32 Havard St, Brookline
 회 한인 동포들 누구나 참석할 수 MA 02445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 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유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유람건강검진 ◆

시설 정비, 컴퓨터 검진방독,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유' 프로그램입니다.
 월별 선상·해상·검진진료·의료진과 보조진료진으로 도와드립니다

☑ 유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1. 이학적검사(신체계측, 체중도, 시력, 안압, 혈압)
2. 흉격검사(순환기계검사)
3. 복벽검사(종양 및 폐검사 70여가지)
4. 암표지자검사
5. 심폐기능검사(호흡기-RAY, EKG, 노폐물배출량)
6. 요검사
7. 목지방검사
8. 방광과경사서자방광부하, 후방독수촬영
9. 소화기검사(수면 유도제사용)
10. 핵부초음파영상(간장, 위장, 췌장, 방광검사)
11. 분진 및 건조의 상담

유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오전 4시간 49만원

·간담회 - [선] 동맥제어, 신장초음파, 심폐기능, 혈액화학
 ·내원회 - [선] 심장초음파, 수혈화학, 종양화학, 골밀도, 약제관리

유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당일 12시경 휴면 69만원

·의상 검진(종양) - 4시간 이상(선상) - 4시간(선상)

유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당일 12시경 휴면 120만원

·의상 검진(종양) - 4시간 이상(선상) - 4시간(선상)

유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당일 12시경 휴면 240만원

·의상 검진(종양) - 4시간 이상(선상) - 4시간(선상) - 4시간(선상) - 4시간(선상)
 15시간(선상) - 4시간(선상) - 4시간(선상) - 4시간(선상)

유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2일간(선상) - 2일간(선상) 437만원

·의상 검진(종양) - 4시간 이상(선상) - 4시간(선상) - 4시간(선상) - 4시간(선상)
 15시간(선상) - 4시간(선상) - 4시간(선상) - 4시간(선상)

유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선상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서울역) H+영지병원(신림역)
 서울부민병원(가양역) 세관병원(북촌역)
 연세대학교병원(강남역)

※ 유람을 통한 여간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기 검진에 정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등 서비스에 상하합니다.

유람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가주오직 : 010-3499-4040(D: Inusankora)
 이메일 : huzim@huzim.kr
 홈페이지 : www.huzimkorea.com

2024 세계 여성위원 컨퍼런스 뉴욕에서 성료

민주 평통 보스턴협의회 조미나 위원 참가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뉴욕 퀸즈 라과디아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4 세계 여성 위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뉴욕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 대회는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여성위원의 역할' 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75개국 평통 여성 위원 80명을 포함하여 약 100명이 참가했다. 보스턴 협의회에서는 조미나 문화예술분과 위원장이 참가했고, 보스턴 협의회 한문수 회장은 W 하루 일찍 개최된 미주지역 운영회의에 참석했다.

세계 여성위원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한 여성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통일 공공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리엔테이션, 통일공공외교 특강,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됐다. 미국외교협의회 종신회원이자 미국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위원회 이사 오공단 박사와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그레그 스칼라티(Greg Scarlatoi)가 특별 강연을 전달했다 심도있는 강연 후에는 열린 질의응답과 분임토의가 이어졌다.

조미나 위원은 "공공외교는 개

인의 말과 행동에서부터 시작하며, 자신이 그것의 표본이 된다(I'm the Sample!)는 오공단 박사의 강연이 무척 인상적이었고,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이 발표한 구체적인 언어와 자료를 통해 북한 구금 시설과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문제를 실감할 수 있었다." 고 전했다.

조위원은 또한 "세번의 분임토의 후, 마지막 날 9개의 각기 다른 분임들이 토의 내용을 발표했다. 각자가 속한 국제사회문화와 다양한 세대의 시각이 반영된 공공외교 및 탈북민 지원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시간이었다. 개인적인 차원의 공공외교를 넘어, 민주평통 위원으로서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나아가 넓은 세대와 플랫폼을 아우르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 정책을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며, 작년 9월 1일 제21기 평통자문위원이 출범했다. 보스턴 협의회에서는 라셀대학 경제학 교수인 한문수 회장과 오은희 간사를 포함하여, 총 53명의 평통자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동창회 2024년도 장학생 모집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동창회 (회장 최진민)에서는 뉴잉글랜드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선발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Junior 이상인 11, 12학년 학생으로 학업성과 리더십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어야 한다. 또한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 1.5세, 2세, 유학생, 및 입양자이며 한국 전통을 존중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이 장학 프로그램은 현재의 도전과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및 멘토십을 형성하고 학업 및 미래를 지원을 목표로 한다.

장학금 액수는 \$2,000에서 \$3,000이며, 특히 창의적인 활용 계획을 가진 지원자를 우선 고려한다.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2쪽 이내의 에세이 그리고 성적표까지 모든 구비 서류를 online으로 마감일 5월 15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웹사이트, www.snuaaane.org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동창회는 심사를 거쳐 6월 초에 선발된 장학생에게 이메일로 연락한다. 장학금 수여식은 6월 중 동창회 총회에서 진행된다. 장학금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snuaaane.future@gmail.com 으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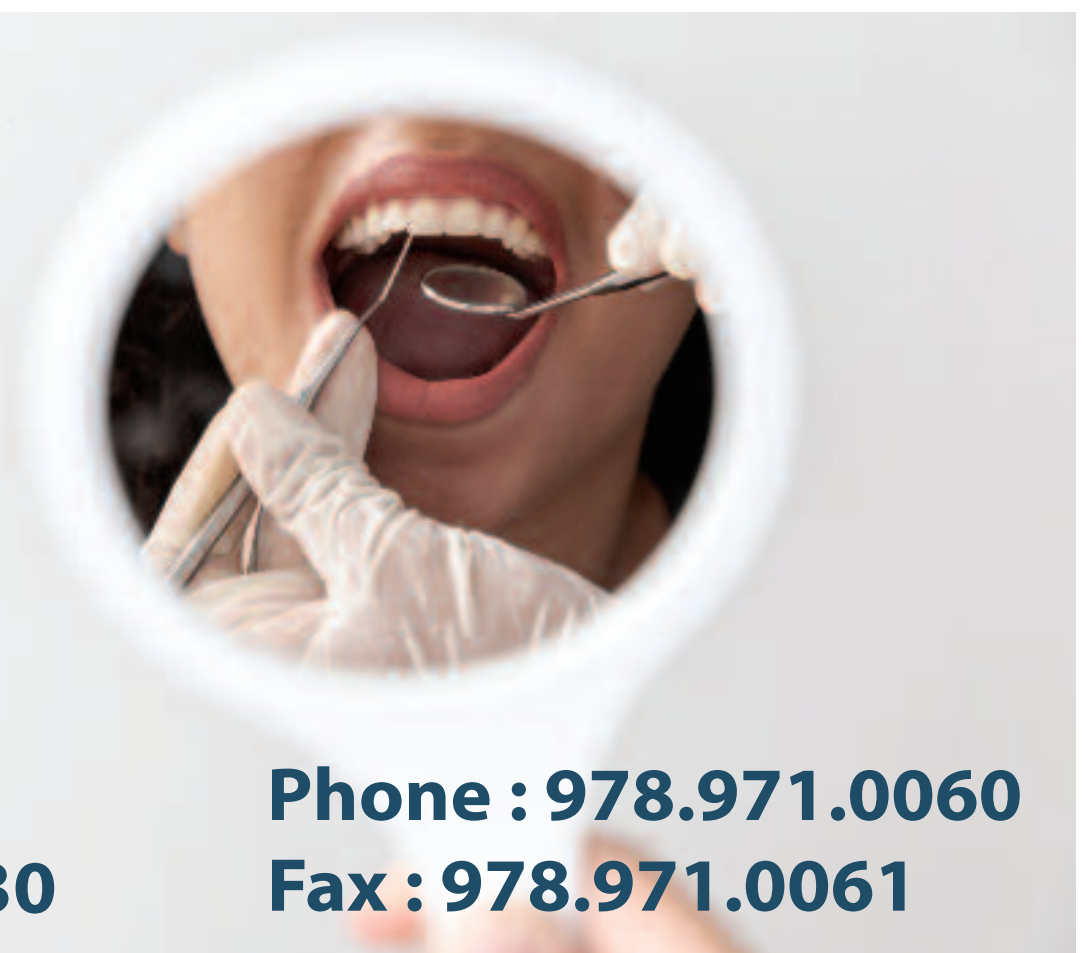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재외동포청, 2024년 세계 한인의 날 유공 포상 후보자 공모

한국 및 동포사회 발전 공헌 개인·단체 추천 가능...4월28일까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4월 8일부터 28일까지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10.5) 유공 포상' 후보자 재외동포 및 국민 공모를 진행한다. 추천 대상은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및 국내 유공자(개

인 및 단체)이다. 포상 훈격은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재외동포청장 표창이다. 정부 포상을 받은 한인은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표창은 3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다.

재외동포 및 국민 누구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서류는 첨부된 공모 안내문을 참고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2, 35층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포상담당자(우편번호 22009)로, 이메일 접수는 hjunkim15@korea.kr로 하면 된다.

후보자 추천이 완료되면, 모든 후보자의 주요 공적 내용이 포함된 명단을 재외동포청, 대한민국 상훈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친다. 접수된 의견은 본인 소명,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에 반영된다.

수상자는 10월께 재외동포청 및 상훈 홈페이지(www.oka.go.kr, www.sanghun.go.kr)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세계 한인의 날 유공 포상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 세계 곳곳에서 헌신한 유공자들을 격려해 모국과 동포사회 간 유대를 강화해왔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숨은 공로자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스톤산악회 4월 20일 제 8회 정기산행

집결 20일 오전 4시 30분, 밀러스테이트파크 주차장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가 오는 4월 20일 토요일 뉴햄프셔 소재 와팩트레일(Wapack Trail)로 정기 산행을 떠난다.

이날 산행은 일출산행(워팩트레일 및 매리언데이비스트레일)만 할 경우 왕복 2.6마일, 노스팩모내드낙(North Pack Monadnock)까지 추가로 갔다오는 경우는 왕복 6.6마일이다. 와팩트레일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 하이킹 트레일 중의 하나다.

준비물은 배낭, 아이젠(Crampons), 스패츠, 헤드랜턴, 배낭, 스틱, 방풍의, 우의, 장갑, 모자, 스틱, 식수, 간편 중식이며, 등산화 착용은 필수다. 눈과 얼음으로 미끄러운 겨울철에는 아이젠(마이크로스파이크 또는 크램폰)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산악회측은 "정상에서는 바

람이 세고 기온 변화가 있으니 장갑과 모자 따뜻한 자켓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기 몸살 기운이 있으면 산행을 취소해달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집결 장소와 시간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산행 당일 아침 새벽 4시 30분 밀러스테이트파크 주차장(Miller State Park 주차장, 13 Miller State PK Rd, Peterborough, NH 03458.)에서 집결한다.

산행 신청은 4월 18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 시 원하는 조와 집결 장소, 차량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산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보스톤 산악회 카페(http://cafe.daum.net/boston-mountaineers)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617-780-9588(들꽃향기)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신문을 독자여러분 집으로 배달해드립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디지털 신문 이메일을 여러분 집에 격주로 배달해드립니다.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태블릿으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신문 전 페이지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기사를 원하시면 바로 클릭만 하시면 PDF 지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보고 싶으시면 위의 + 버튼을 눌러 주세요. 줄이고 싶으시면 - 버튼을 눌러주세요.

남과 비교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 출산율 저하 초래 입증

▶▶1면에 이어서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동덕여대 손승영 교수는 2005년 논문에서 심층면접을 통해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적인 이유와 자녀 교육 그리고 경쟁심리 등에서 찾았다.

김성은 교수는 이 접근을 넘어 경제학적으로 출산율 저하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경제적 부담이 큰 사교육비 지출 결정에 있어서 남과의 비교를 통한 '외부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다. 외부성(외부효과)은 특정인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대가를 받거나 지급하지 않았을 때를 가리키는 경제학 용어다.

사교육에 적용되는 외부성은 이렇게 작용한다. 부유층은 자녀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상대적 비교를 하는 다른 가정은 자녀의 수준이 뒤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비 지출을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는 사회적인 최적의 수준을 넘어서 낭비적인 과다한 사교육 지출로 이어진다.

모교인 브랜디스 대학에서 세미나 발표 차 3월 말 보스턴을 방문한 김 교수는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이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도록 정책적인 개입을 하는 게 정당화 되는 근거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논문의 관건은 사람들이 실제로 비교하는지를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가 여부였다. 경제

학 실험은 신약개발처럼 사람을 상대로 실제적인 실험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교수는 각 지자체가 청소년의 건강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원시간을 제한한 조례를 도입한 것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얻었다.

데이터를 연구한 결과 조례는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흥미롭게도 저소득층 자녀의 사교육비도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됐다. 고소득층의 사교육비를 줄이면 저소득층에서도 같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외부성의 제거는 저소득층에서 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을 63%, 부유층은 37%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출산율도 모든 소득층에서 상승(1.92자녀에서 2.45자녀로 증가)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서 상승율이 높았다. 저소득층 중 무자녀 가정도 5.2%에서 0.2%로 감소했다. (표 1.2)

김 교수는 이를 '스필오버 효과'라고 설명했다. 스피로버(spillover)는 겉보기에 관련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경제학 용어다.

이 같은 스피로버 효과는 중국에서도 관찰됐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7월 자 인터넷판 보도에서 중국의 출산율 저하를 연구한 논문을 보도하며 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스필오버효과'를 꼽

Figure 3: Status Externality and Fertility across Income Quinti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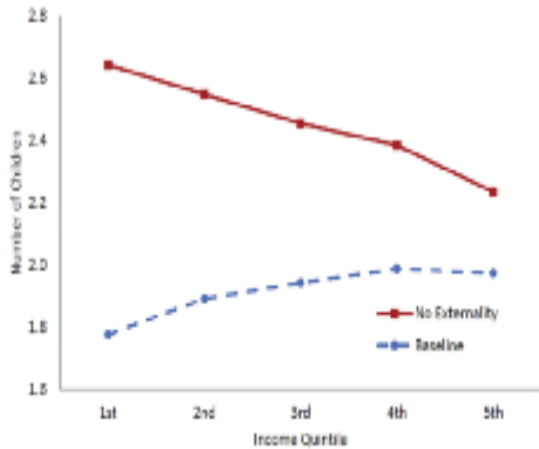


Table 6: Effects of the Status Externality across Income Quintiles

		Income quintile				
		1st	2nd	3rd	4th	5th
Childlessness rate (%)	Baseline	5.2	2.9	3.1	3.0	2.7
	No Externality	0.2	0.3	0.5	0.8	1.2
Education spending per child rel. to income (%)	Baseline	13.6	12.1	11.2	10.5	10.2
	No Externality	5.0	5.1	5.8	5.7	6.3
Change relative to baseline (%)		-63.0	-57.8	-48.4	-45.8	-37.6

았다.

이코노미스트는 한(漢)족이 많을수록 이 효과가 컸다면서, 자녀가 적을수록 더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가정에서도 자녀를 줄여 교육을 시키려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는 점을 논문을 인용해 밝혔다. 이 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는 김성은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 중국 외에 남과 비교하는 곳은 한국이 있다며 한국의 사교육 시장에서의 남과의 비교한 사교육비 지출을 꼬집었다.

김 교수의 연구는 한국에서 관찰되는 사교육비 지출의 스피로버 효과를 지적하고 이러한 경제학적 모델이 실제현실을 설명하는데 적합함을 증명

했다. AER에 게재될 이 논문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김성은 교수의 논문이 게재되는 AER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있는 경제 저널 중의 하나이다. 세계은행의 블로그에 따르면 AER은 한해 2천여편 이상의 논문이 제출되며 논문으로 채택되는 비율은 5-7%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통해 재정경제부에서 근무했으며 브랜디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종대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editor@bostonkorea.com

글로벌 감리교회(GMC) 동북부 지방 한인 연합부흥회

강사로 조영진 명예 감독 초청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글로벌 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의 동북부지방 회에서 오는 4월 26일(금)부터 28일(주일)까지 한인들을 위한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부흥회는 연합감리교회(UMC)의 감독을 지냈던 조영진 감독(현 GMC 명예 감독)을 초청해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 아래 사흘 동안 진행한다. 첫째 날 '인도하심을 따라' (26일 금 오후 7:00), 둘째 날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28일 토 오후 7:00), 셋째 날 '남겨야 할 삶의 지취' (28일 주일 오후 2:00)란 제목으로 부흥회가 이어진다.

이번 성회에 강사인 조영진 감독은 연합감리교회의 한인 감독으로 은퇴 후 글로벌 감리교회의 명예 감독으로 그리고 Unit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연합 부흥성회는 레딩(Reading)에 있는 보스턴 새소망 교회(담임목사 이장규)에서 개최된다. 보스턴 새소망 교회는 뉴잉글랜드 보스턴 지역에서 첫 글로벌 감리교회(GMC) 소속 한인교회로 지난해 6월에 개척, 설립됐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설립 후 첫 부흥성회를 통해서 한인들에게 교회를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회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이민 생활에 지친 한인들에게 새로운 영적 도전과 영적 부흥의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아무쪼록 많은 분이 함께하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오셔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집회를 위해 동북부 지방의 감리사인 최형용 목사와 케네디컷 중앙 교회의 김정환 목사 등 GMC 목회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집회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보스턴 새소망교회로 연락하면 된다.

보스턴 새소망 교회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전화 202-656-5501)
bostonkorean@hotmail.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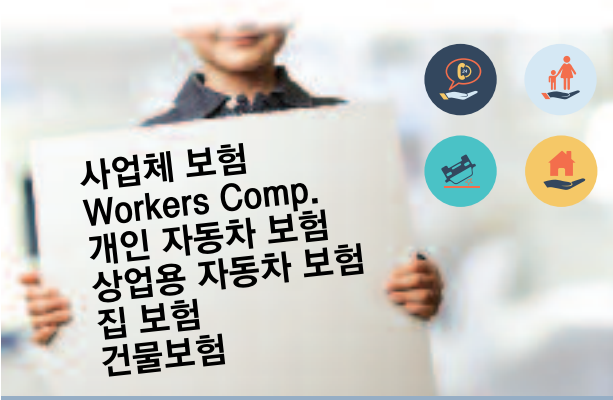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일식 보러 뉴햄프셔 간 여행객, 집까지 11시간 걸려 도착

평상시 3시간이면 도착하던 집 11시간이나 걸려 뉴햄프셔 지역 데이터 서비스 불통, 경찰도 없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8일 전면일식을 보기 위해 뉴햄프셔로 떠났던 매사추세츠 주민 상당수가 귀가길에 차량정체에 평상시 3시간이던 거리를 11시간이 걸려서야 집에 도착했다.

보스톤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메드포드에 거주하는 마크 모건 가족은 저녁 7시에 뉴햄프셔를 떠나 다음날 아침 6시에 집에 도착했다. 특히 여행 도중 주차장이 된 도로에서 전화 데이터서비스까지 끊겨 이중, 삼중고를 겪은 이들은 뉴햄프셔 주의 많은 인파 대응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모건 가족은 지난 2017년 테네시까지 일식을 보러 갔지만 완전히 태양을 가리는 전면일식을 아쉽게 놓쳤던 경험에 이번에는 반드시 완전체 일식을 보겠다는 다짐을 했다. 노스 스트레포드에 친척이 있어 일요일 그곳을 방문했다.

전면 일식을 보는 경험은 너무 좋았다는 모건은 자신들이 있던 곳에서부터 좀 더 남쪽에 위치한 랭카스터에 인파들이 모여들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내려오는 길에 차량 정체를 어느 정도 감안했다.

일식을 보고 미리 떠날 것을 계산해 저녁 7시 조금 시간을 두고 출발하면 최악의 정체는 면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

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계산을 했던 것이다.

처음 출발할 때는 약 5-6시간 정도를 예상했었다. 그러나 프랭코니아의 93번도로와 3번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편도 1차선으로 좁아지는 병목을 지나기까지 8시간 30분이나 걸려야 했다. 일반적으로 약 1시간이면 오는 거리였다. 어떤 구간에서는 5마일을 지나는데 5시간이 소요됐다.

데이터 연결문제도 정체를 키웠다. 랭카스터를 지났을 때 구글과 애플 지도는 모두 파란색이었으나 실제로는 범퍼와 범퍼를 맞댄 주차장이었다. 이 구글과 애플 맵은 처음 좀 이상했다가 추후에는 완전히 작동하지 않았다. 전화는 물론 텍스트도 불가능했다.

만약 이 같은 정체 구간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면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모건은 “정차할 곳도 없었고, 뉴햄프셔 산 숲속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병목 구간인 프랭코니아를 지난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전화 서비스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모건은 이 같은 좁은 길에 적어도 경찰이라도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지역 경찰도, 주 경찰도 특별한 사인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패리스에서 관측된 개기일식



뉴햄프셔 콩코드 맥컬리프디스커버리 센터에서 일식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WCVB 보도에 따르면 웨이크필드에 거주하는 한 가정도 비슷한 밤샘운전을 했다. 이들은 버몬트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 무려 4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다. 이 충전소는 수백

장의 티켓을 배부해 순서에 따라 충전하도록 했다. 이 가족은 새벽 4시에 집에 도착했다.

모건 가족은 오전 6시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에게 학교가기 전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도록하고 점심 준비를 시작했다. 이 같은 고생에도 이번 전면일식을 위한 여행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하버드, 올가을 학기부터 SAT 제출 의무화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대가 올 가을학기 입시부터 다시 SAT 성적 제출을 의무화한다. 하버드 크림슨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는 내년도까지 SAT 성적을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반복하고, 시험 성적을 입학 사정 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다시 지정했다.



다른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SAT 의무화 방침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버드 역시 이들과 같은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 예일, 다트머스, 브라운대 등은 이미 시험 성적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하버드는 그동안 다른 아이비리그 학교들의 SAT 의무화 방침에도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학계와 입학전문가 모두에게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올해 가을 및 겨울에 하버드에 지원하는 학생들

은 SAT 또는 ACT 성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버드 인문대 교수협의회 회장 호피 호이크스트라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SAT는 살아온 배경이나 경험에 관계없이 대학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호이크스트라 교수는 이어 "특히, 예측 가능한 정보의 추가는 사회경

제적 범위에 걸친 인재 선별에 소중하며, 이번 변화가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을 더 잘 선별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4년간 SAT 선택 제출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하버드에 지원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SAT 점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버드 측은 정확한 제출 비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난폭운전으로 싸움중, 한 여성 치어 사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난폭운전으로 격발된 싸움 중에 한 여성이 차에 치어 사망했다.

데스티니 디콕(26)씨는 4월 4일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다.

미들섹스카운티 지검에 따르면 밀포드에 거주하는 라이언 스웨(36)은 혼다 시빅을 몰고 85번 지방도를 타고 가다 디콕씨가 탄 차와 시빅이 붙었다.



도로위의 다툼으로 인해 사망한 데스티니 디콕씨(26), 고편드미 캡처

검찰에 따르면 이 두차는 시빅 중에 디콕씨를 비롯한 일부 승객들이 차에서 내렸고 스트웨트는 차를 유턴한 후 빠른 속도로 몰아 디콕씨를

치었다. 스웨는 프래밍햄지법에 5일 위험 무기를 이용한 신체상해, 차선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디콕씨가 병원에서 사망함에 따라 기소 혐의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빈술병 리사이클 뉴햄프셔에서

6주간의 브링백잭 이벤트로 빈술병 재활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 리커앤와인아웃렛은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향후 6주동안 와인 및 위스키 병을 재활용 목적으로 구매한다.

브링백잭(Bring Back Jack)이라 불리는 이번 행사는 뉴햄프셔 리커위원회와 잭 대니얼 테네시 위스키와 협업으로 진행된다.

12명 이상의 와인 또는 위스키 병을 가져간 고객들은 \$150 이상 구매시 \$25의 할인이 제공된다. 107명의 와인 및 위스키 병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주들에게는 최고 1만불어치 구입시까지 10%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는 매주 토요일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4월 6일 맨체스터 Manchester (68 Elm St.), 4월 13일 내슈아(25 Coliseum Ave.), 4월 20일 웨스트 레바논(25 Coliseum Ave.), 4월 27일 포츠머스(605 US-1 BYP South), 5월 4일 콩코드(11 Merchants Way), 5월 15일 틸턴(80 Market St.). 지난해에도 뉴햄프셔는 3만4천병의 폐병을 모아 이를 다시 리사이클했다.

hsb@bostonkorea.com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태양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래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하체 유연성을 위한 '다리찢기' 스트레칭

몸이 뻣뻣해 요가를 시작할 엄두가 안나요~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내 몸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건, 그만큼 그동안 몸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어떻게 움직이고 사용하냐에 따라 충분히 변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동작들을 영상을 틀어놓고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첫날에 잘 되지 않았던 동작들이 일주일만 지나도 익숙해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 (Yogasonghayeon)에 최근 업로드한 9min Splits Stretches영상을 찾아해보시면 되구요, 제가 이와 함께 격일로 짧은 SHORT영상도 올리고 있으니 꼭 구독하시고 자주 따라해보세요.

3단계 들숨에 살짝 올라왔다가 날숨에 다시 내려갑니다.

4단계 5회 이상 반복하고 다음 동작을 바로 준비합니다.

TIP!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무릎이 안으로 말리지 않게 주의하며 엉덩이를 내려주세요.

2. 게이트 자세 변형 - 안박지 (adductor) 스트레칭

1단계 위의 동작이 끝나는데로 앞의 무릎을 펴고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후 몸을 앞뒤로 rocking 해줍니다.

2단계 들숨에 엉덩이를 앞으로, 날숨에 엉덩이를 뒤로 보내세요.

3단계 허벅지 안쪽의 자극에 집중하면서 5회 이상 진행합니다.

4단계 반대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두개의 동작을 이어 스트레칭해주세요.

TIP! 엉덩이를 뒤로 보내는게 힘든 분들은 가볍게 앞뒤로 조금씩만 움직여도 좋으니 안전하게 자신의 가동범위 안에서 스트레칭해주세요.

3. 프로그 자세 변형 - 골반과 다리의 회전 (rotation) 연습

1단계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리고 손이나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립니다. - 개구리 자세

2단계 개구리 자세에서 5회 이상 호흡 후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보냈다가 한 발씩 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3단계 좌우 방향을 바꿔가며 움직여봅니다.

TIP! 다리의 회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다리 찢기 자세에 성공할 수 있어요. 처음엔 잘 안되더라도 매일 꾸준히 연습해보시길 바랍니다.

*곧 한국어 유튜브 채널(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에 설명이 담긴 토크 버전 영상도 올릴테니 그 영상도 꼭 참고해서 연습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강사로부터 실시간 '자세교정' (1:1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혹은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1. 전사 2자세 변형 - 힙의 가동범위 (mobility) 늘리기

1단계 한 무릎은 바닥에 내려놓고 반대 무릎은 세워 발목과 같은 라인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2단계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리며 허벅지 안의 근육을 늘려주세요.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전 세계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TALK YOGAFULLNESSLIFE

@YOGASONG_HAYEON

CONNECT@YOGAFULLNESS.LIFE

WWW.YOGAFULLNESS.LIFE



항공청,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동체 제조 결함 여부 조사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항공 당국이 보잉사가 만드는 여객기인 787 드림라이너의 동체 부분들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수천번의 운항 뒤에는 비행 중 분리될 수 있다는 내부 고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보잉사에서 드림라이너 업무를 했던 엔지니어인 샘 살레푸어가 연방항공청(FAA)에 문건을 보내 드림라이너의 사고 위험을 알렸으며 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FAA 대변인은 살레푸어의 주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살레푸어는 보잉사가 항공기의 동체를 구성하는 거대한 섹션(부문 또는 구획)들을 생산라인에서 서로 연결해 조립하는 과정을 바꾸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드림라이너 동체는 여러 다른 제조사가 만드는 여러 조각으로 구성되는데 이 부분들을 연결하는 지점의 모양이 균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잉사는 제조 과정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체의 내구성이나 안전성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폴 루이스 보잉사 대변인은 보잉사가 드림라이너를 광범위하게 시험했고 "즉각적인 비행 안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엔지니어들은 비



행기의 어떤 부분에서 장기적인 피로도(fatigue)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복잡한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은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운항 중인 항공기에는 여러 해 동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분석이 포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팀을 재조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보잉사가 737 맥스 여객기의 도어 패널이 비행 중 떨어져 나간 사고 이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보잉사의 제조 관행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살레푸어씨의 주장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의회의 상원 국토안보·정부문제위원회는 오는 17일 살레푸어씨를 증인으로 세워 청문회를 할 예정이다.

살레푸어씨는 보잉사에 우려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여러 번 보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드림라이너는 동체를 만들 때 전통적인 금속 대신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 소재를 많이 써 기존 항공기보다 연료를 적게 쓰는 게 특징이다.

2011년에 고객사에 처음 인도됐으며 상대적으로 새로운 소재를 썼기 때문에 장기간 쌓이는 비행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엔지니어들은 피로도(fatigue)라고 부르는데 이 때문에 소재가 제 기능을 못 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적 항공사 가운데는 대한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787 드림라이너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다.

구글 "포토 이용자에 AI 기반 편집 도구 무료 제공"

MS, 내달 콘퍼런스서 PC·클라우드 새 AI 기능 공개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구글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도구를 모든 구글 포토(Google Photos)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내달 15일부터 향후 몇 주간 AI 기반 편집 기능 이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며 같이 전했다.

구글 포토 편집 AI 기능에는 원치 않는 물체를 지울 수 있는 '매직 이레이저'(Magic Eraser), 초점이 맞지 않는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는 '포토 언블러'(Photo Unblur), 사진 밝기를 재조정할 수 있는 '포트레이트 라이트'(Portrait Light) 등이 있다.

그동안 이들 기능은 구글의 스마트폰인 픽셀 폰과 구독 서비스인 구글 원(Google One) 클라우드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구글은 이번 이용자 확대를 위해 픽셀 태블릿을 포함한 더 많은 기기에 이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와 함께 '매직 에디터'(Magic Editor) 기능을 안드로이드 폰뿐만 아니라 아이폰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글 포토' 앱 이용자는 매달 10장의 사진을 매직 에디터로 편집할 수 있고, 구글 원 프리미엄 가입자는 무제한으로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구글의 최신 픽셀폰에 처음 탑재된 매직 에디터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사진 속 피사체의 위치를 바꾸거나 아이টে임을 없애고 하늘의 색을 바꾸는 등 다양한 편집이 가능한 기능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내달 21~23일 시애틀에서 열리는 연례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퍼런스 'MS 빌드'(Build)에서 개인용 컴퓨터(PC)와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AI 도구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MS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접속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AI 챗봇 코파일럿의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송수신하지 않고 이용자 PC에서 AI를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AI PC' 기능도 선보일 예정이다.

MS는 지난달 AI PC 전략의 하나로 자사의 AI 챗봇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코파일럿 버튼을 키보드에 장착한 '서피스(Surface) PC'를 출시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MS 최고경영자(CEO) 사티아 나델라와 함께 최근 MS의 AI 사업 책임자로 영입된 AI 스타트업 딥마인드 공동 설립자인 무스타파 술레이만이 함께 기조연설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성 안토인 드라비루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번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I've helped 410+ clients find their place in Greater Boston

부동산 전문가,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FINANCIAL FREEDOM)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모든 상담을 해 드립니다.

실력, 열정 그리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더욱 풍성한 2024년 새해가 되도록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Awards/Honors:

- 2022, 2023 Boston Magazine Top Real Estate Producers
- Achieved top-ranked (#1) solo agent status at Compass Cambridge Office, demonstrating top performance in sales and client satisfaction
- Wall Street Journal America's Best Real Estate Professional List
- Hosted the Boston episode of 'The American Dream', a national TV show, highlighting Boston's real estate, and lifestyle to a nationwide audience

COMPASS

Achieved in 2023

\$25M+

TOTAL SALES

40+

TOTAL # OF TRANSACTIONS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연준 위원들 "2% 인플레이 확신 전까지 금리인하 부적절"

3월 FOMC 의사록 공개 ... "최근 물가지표, 확신 늘리는 데 기여 못해 양적긴축 속도 조만간 늦추자는 데 공감대...2017~2019년 사례 검토"

(뉴욕 =연합뉴스) 이지현 특파원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지난달 열린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최근 물가지표가 실망스럽게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금리인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부분 위원은 연내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미 연준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3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통화정책 전망에 관한 참석 위원들의 견해를 이처럼 전했다.

의사록은 "회의 참석자들은 강한 경제 모멘텀을 가리키는 지표와 실망스러운 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했다"며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더 강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참석 위원은 경제가 예상 경로로 움직일 경우 연내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를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의사록은 전했다.

다만, 연준 위원들은 물가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의사록은 "참석자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주목하면서 최근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2%로 안정적으로 둔화한다는 확신을 늘리지 못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일부 참석 위원은 지정학적 위험이 심각한 공급 병목현상이나 임금 상승을 초래해 물가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의사록은 전했다.

한편 연준 위원들은 2017~2019년 실행됐던 양적긴축(QT)의 종료 당시 경험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대차대조표 축소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취하는 게 적절하다고 대체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위원은 자산매각 속도를 조만간(fairly soon) 늦추기 시작하는 게 신중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불리는 양적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

식을 가리킨다.

앞서 양적긴축이 진행됐던 2018~2019년에는 연준의 자산 매각 여파로 증시가 흔들리고 다수의 투자자산이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민감도가 커진 바 있다.

과월 의장도 3월 FOMC 회견에서 QT에 대해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지만, 위원회에서 조만간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의사록은 지난달 19~20일 열린 FOMC 회의 내용을 담았다. 연준은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다.

과월 의장은 3월 회의 후 회견에서 "우리는 지난 2개월(1~2월)간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봤다. 앞으로 울퉁불퉁한(bumpy)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3월 소비자물가 3.5% ↑ ...상승률 6개월 만에 최대

(뉴욕 =연합뉴스) 이지현 특파원 = 에서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들어 3%대 중반으로 반등하며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 반등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 기대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미 노동부는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3.7%)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한 달 전인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3.2%) 대비 크게 오른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3.4%)도 웃돌았다.

전월 대비 상승률 역시 0.4%로 전문가 예상치(0.3%)를 웃돌았다.

주거비(전월 대비 0.4%)와 휘발유(전월 대비 1.7%) 가격 상승이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에 절반 이상을 기여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6월 9.1%를 고점으로 기록한 뒤 작년 상반기까지 둔화 추세를 나타내왔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이후 3%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2%대 진입에 실패해왔다.

특히 지난 1~2월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둔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해졌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해 2월 상승률(3.8%)과 같았다. 전월 대비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역시 2월 상승률(0.4%)과 같았다.

근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수치 모두 전문가 예상치를 모두 0.1%포인트씩 웃돌았다.

근원 소비자물가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 가격을 제외하기 때문에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안정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해왔다.

제품과월 연준 의장은 최근 연설에서 "최근 물가지표가 단순한 요철(bump) 이상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말하며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이어질지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환 교외이비인후과
www.junyo.co.kr

좋은사람들
www.junyo.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이란, 이스라엘에 보복 임박했다...본토 타격설에 중동정세 긴장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국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직접 충돌로 번질 경우 중동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여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관 당국자들을 인용, 이스라엘 영토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이 곧 이뤄질 예정이며, 공격에는 '고정밀 미사일'이 동원될 수 있다고 보도해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곧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에 힘을 실었다.

블룸버그는 이란의 보복 공격은 시간 문제라는 한 당국자의 말을 전하며, 이란의 공격은 민간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시설이나 정부 시설을 겨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코앞으로 닥쳤다는 보도에 대해 바

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굳건하다(ironclad)"며 미국은 이란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란의 위협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의 미심정한 공격을 벌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말한 것처럼 이란과 그 대리세력의 이같은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약속은 굳건하다. 다시 말하지만, 철통같다"고 말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고,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동참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이런 보도에 대한 텔레그래프의 논평 요청에 즉답을 피한 채 미국 정부는 "이란의 수사(rhetoric)를 알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만 밝혔다.

미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는 이와

관련, 중동 지역의 미군 책임자인 마이클 에릭 쿨릴라 미 중부사령관이 이란과 이란 대리세력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비하고 공동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11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이스라엘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전했다.

이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이 탄도 미사일과 드론, 크루즈 미사일 등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겨냥해 유례 없는 직접 공격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약시오스에 밝혔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이스라엘 역시 이란에 대한 직접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이 당국자들은 덧붙였다.

시리아 주재 영사관이 폭격을 받은 직후 즉각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천명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그는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 종료에 맞춰서 한 연설에서 "그들이 영사관을 공격한 것은 우리 영토를 공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사악한 정권은 실수를 저질렀고, 벌을

받아야 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북부의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부대를 방문한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메네이의 이란 으름장에 대해 "우리를 공격하려 하는 자가 누구든 강력한 방어와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갈란트 장관은 지난 8일에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통화하는 등 이스라엘과 미국은 최근 며칠 전 한 양국의 공동 대응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시오스는 이스라엘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 미국이 이란 측에 공개적 또는 막후로 경고를 해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대응 강도를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스라엘이 미국에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와 이라크 등 아랍 국가들의 외무장관들이 이날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해 역내 긴장 완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것도 이란 측에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미국의 부탁을 받고 이뤄졌다고 약시오스는 덧붙였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직접 충돌 가

능성이 높아지며 하늘길도 당장 영향을 받고 있다.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지는 중동의 상황을 고려해 테헤란 운항을 중단한다고 10일 밤 발표했다.

루프트한지는 "중동의 상황을 상시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당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일 발생한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으로 이란 측에서는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의 레바논·시리아담당 지휘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와 부지휘관 모하마드 하디 라히미, 그리고 다른 6명의 혁명수비대 장성들이 숨졌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고, 미국은 이란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이번 공격을 사전에 몰랐다고 발빠르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란은 공격 주체가 이스라엘임을 기정사실화하고, 미국과 영국도 이스라엘의 공격을 묵인했기에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복을 베풀고 있다.

중동정세 긴장으로 국제유가는 강세를 나타냈다.

2024년 보스톤코리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이메일과 카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4년에는 종이신문은 격주로 발간됩니다.

종이신문이 발간되지 않은 격주에는 디지털 신문이 발간됩니다.

디지털 신문은 이메일로 여러분에게 발송됩니다.

이에 따라 보스톤코리아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분들은 구독 신청을 해주세요.

이메일로 구독을 신청해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에 <구독신청합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5년 여소야대' 직면한尹대통령...국정운영 '힘로'

각종 국정과제, 거대야당 문턱 넘어야...협치로 좌표 재설정하나 야권 주도 특검·국정조사에 정국 격랑 가능성...인적쇄신·조직개편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포스트 총선' 국정 운영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제22대 총선에서는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정치적 지형을 깨고 힘있게 국정과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을 설계했지만, 현실에 마주한 것은 참담한 패배다.

집권 3년 차이자 내달 10일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민심은 차가운 성적표를 안겼다.

윤 대통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는 표심이 여당에 한층 쏠리면서 연거푸 승전고를 울렸다.

그러나 윤 대통령 집권 2년에 대한 민심의 반응은 냉담했다.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향후 국정 운영 방식의 재설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 여소야대에 국정과제 추진 동력 약화하나

당장 목전에 둔 난관은 국회 여소야대 지형이다.

인위적 정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거대 야당에 둘러싸이게 된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체제 이후 처음 있는 장면이다.

이에 따라 국정 동력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 정부의 철학을 담은 국정 과제들 상당수는 입법이 수

반대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입법 권력을 움켜쥔 야권이 쉽사리 협조할 리 만무하다.

집권 초반에는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그마저도 이제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나 규칙 제정으로만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들테면, 현 정부가 내건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을 비롯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같은 의료개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저출산 대책, 여성가족부 폐지 등과 연계된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불투명하다.

그간 24차례 개최한 민생 토론회를 통해 내놓은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대담에서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답답함을 털어놓았다.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는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법안들을)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범야권 주도 법안에 더 힘이 실리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이종섭 특검법' 등 각종 특검과 국정



윤석열 대통령, 부산에서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4.4.5 [대통령실 제공]

조사가 추진돼 정국이 격랑에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사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개헌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마저 한때 흘러나왔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하게 됐다.

◇ 국정 쇄신 요구 분출하나...대통령실·내각 인적 쇄신 가능성

결국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에 대대적 변화를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야권과 관계 설정이 중요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단둘이 마주하지 않았다. 이른바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잔재라는 명분을 내세

웠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야권은 '불통'이라고 공격했다.

시선을 여권 내부로 돌려도 향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만약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책임론이 분출하고, 자중지란에 휩싸인다면 국정 장악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당 내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일각에서 집권 3년 차에 조기 권력 누수(레임덕)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충격에 빠진 국민의힘을 다독이고, 나아가 국익을 토대로 야권과 접점을 찾으면서

협치를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여권 일각에서도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기존 국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필요한 개혁 과제라면 정치적 유불리와 상관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대 증원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서도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APR. 12th - APR. 18th, 2024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A K-BBQ ESSENTIAL: CORN CHEESE!

Made easily with simple ingredients, corn cheese is the ultimate hassle-free side dish that's great for any occasion. 치즈가 쭈욱쭈욱, 옥수수가 툭툭 터지는 환상의 맛, 콘치즈의 황금레시피를 H 마트가 공개합니다.



Sweet Potato 고구마 10 LB/BOX \$17.99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Sand Pear 샌드 배 LB \$2.99	Kabocha 단호박 LB \$0.99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Orri Mandarin 오리 만다린 LB \$2.99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Ginger 생강 LB \$2.99	PULMUONE Tofu 플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FOR \$3.99	Honey Ataulfo Mango 허니 아틀포 망고 BOX \$14.9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Chuck Eye Roll Steak 생 목등심 스테이크 LB \$8.99	Fresh Boneless Pork Loin for Cutlet 생 돈까스 LB \$5.99
Fresh Whole Pork Baby Back Ribs 생 돼지 등갈비 LB \$3.99	Fresh Pork CT Butt 생 돼지목살 (수육용) CHUNK/LB \$6.99
Fresh Chicken Wing 생 닭 날개 LB \$3.99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양념 LA 갈비 SLICED/LB \$14.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Head-on Shrimp 머리새우 30-40'S/LB \$4.99	Frozen Octopus 문어 LB \$5.99
Frozen Unagi Kabayaki 우나기 9 OZ/PKG \$8.99	RI WANG Frozen Fish Cake 리왕 어묵 SELECTED VARIETIES LB \$5.99
SANFORD Frozen Mussels in the Half Shell 반칸홍합 2 LB/PKG \$11.99	Fresh Catfish 메기 LB \$1.99

SMART CARD MEMBER ONLY

NONGHYUP Yecheon Korean Rice 농협 예천 일품쌀 22 LB \$24.99	HAIO Premium Roasted Seaweed 해오름 밥도둑 도시락김 ORIGINAL/GREEN LAVER/ VALUE PACK 0.15 OZ X 16 EA/PKG \$4.99
TONGTONGBAY Short Neck Clam Meat 통통배 바지락살 1 LB/PKG \$4.99	PULMUONE Cold Noodles with Broth 평양 물냉면 34.9 OZ \$4.99

RAW NATURE Cooked Brown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현미밥 7.4 OZ X 12 BOWLS/PKG \$10.99	OTTOGI Jin Ramen 오뚜기 진라면 SPICY/MILD 4.23 OZ X 18 EA/BOX \$15.99	NONGSHIM Shin Cup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컵 2.64 OZ X 6 EA/PKG \$7.99	JINGA Abalone Porridge/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전복죽/사골곰탕 PORRIDGE - 14.8 OZ X 3 EA/BOX SOUP - 16.9 FL OZ X 6 EA/PKG \$10.99	JINGA Sliced/Tteokbokki Rice Cake 진가 쌀떡국떡/쌀떡볶이떡 2 LB \$2.99
KT Songjuzip Seasoned Webfoot Octopus 키타 송쭈집 양념 주꾸미 프리미엄 밀키트 SPICY 1.1 LB \$9.99	YOODONG Canned Bai-top Shell (Whelk) 유동 자연산 골뱅이 캔 14.1 OZ \$6.99	HAIOREUM Peeled Roasted Chestnuts 해오름 껍질 간 맛밤 3.52 OZ \$5.99	ORION Marine Boy Snack 오리온 고래밥 (양념맛) 1.41 OZ \$5.99	CROWN Vic Pie Strawberry 크라운 빅파이 딸기 11.43 OZ \$3.99
KWANGDONG Vita 500 광동제약 비타500 100 mL X 10 BTLs /PKG \$5.99	DANYA Mochi Mochi Ice Cream 단야 모찌모찌 아이스크림 ASSORTED 2 FL OZ X 6 EA/PKG \$3.99	SKINFOOD Carrot Carotene Calming Water/Pantothenic Water Pads 스킨푸드 캐롯 카로틴 카밍/판토텐산워터 파슬리 (미나리) 스킨토너 패드 \$27.99 \$15.99	Yellow Aluminum Pot 한국산 양은 황냄비 PRODUCT OF KOREA/22 CM 8.81 OZ (60 PADS) EA \$13.49 \$7.49	Melamine Tray 멜라민 쟁반 PINK FLOWER/WHITE FLOWER SMALL (30 X 21.5 CM) \$4.49 \$2.99

UNTIL APR. 18, 2024

JINGA
오징어실채 (흰)
STIR-FRIED DRIED SQUID SLICE
Every Body's Favorite Banchan!
~~\$8.99~~ **\$4.99**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계봉 DIRECTOR 781.654.5281 jek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김지현 978.494.2043 jim@bostonpremierrealty.com	 노미연 617.447.0501 nohmiyeon@bostonpremierrealty.com	 박주 617.780.7639 tjpark@bostonpremierrealty.com	 장지희 978.866.3248 tjjang@bostonpremierrealty.com	 이진우 401.538.3397 rylee@bostonpremierrealty.com
 박소연 617.338.0787 soyeon@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한수연 617.528.6973 hansoyeon@bostonpremierrealty.com	 민수연 253.503.0347 minsoyeon@bostonpremierrealty.com	 박지희 413.507.1400 parkj@bostonpremierrealty.com	 손정태 617.913.3348 sonj@bostonpremierrealty.com
 최진길 617.877.0387 jin@bostonpremierrealty.com	 이정순 781.836.3412 soony@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59.1214 han@bostonpremierrealty.com	 장혜정 617.915.1162 jjang@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국 617.943.0728 jg@bostonpremierrealty.com	 박진희 404.641.9192 parkji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94.58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482 nancywang@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531.0314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e 617.936.2713 vivianye@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7.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ong 248.449.0117 jio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rra 978.873.0076 msorra@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8.26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wei@bostonpremierrealty.com	 정혜민 박 201.446.8995 min@bostonpremierrealty.com	 재미크 김 781.596.0409 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신현 857.26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Mini Belanger 413.257.1586 mini@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을 잡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민주 '압도적 과반' · 與 3연패...야권 190석 넘을 듯

민주 지역구만 161석, 단독과반 연속 달성...조국당 12석 '돌풍'
국민의힘 지역구 90석에 비례 19석...'개헌 저지선' 가까스로 사수
범야권 정국 주도권 유지...3년 남긴尹정부, 국정동력 타격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최평천 김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4년 전에 이은 '압승'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도 4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참패다.

개표율이 약 98%를 기록한 11일 오전 5시 현재 민주당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동부권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석권했다.

총선 승패를 좌우하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서울 48곳 중 37곳, 경기 60곳 중 53곳, 인천 14곳 중 12곳을 확보했다. 수도권 전체 122석 중 102석을 싹쓸이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수도권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한강벨트'에서 중성동갑·을, 영등포갑·을, 광진갑·을, 강동갑·을, 마포을, 동작갑 등 격전지를 가져왔다.

여기에 '텃밭'인 호남(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모두 차지하고, '중원'인 충청권에서도 28석 중 21석(대전 7석, 세종 1석, 충남 8석, 충북 5석)을 확보했다.

영남·강원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보인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으로만 단독 과반인 161석을 확보했다. 지난 총선(지역구 163석)과 비슷한 규모다.

국민의힘 수도권 의석은 19석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전통적 강세 지역인 '강남 3구'를 수성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동작을을 탈환하고 마포갑과 도봉갑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11석이라는 성적표에 빛이 바랬다. 인천(2석)은 지난 총선과 같았고, 경기(6석)는 오히려 1석 줄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과 세종은 지난 총선에 이어 '0석'을 기록했고, 충북도 3석으로 지난 총선과 같았다. 충남은 지난 총선보다 2석 줄어

든 3석에 그쳤다. 대구·경북의 25석을 모두 차지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 40석 중 34석을 확보하는 등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을 지켜낸 것은 성과다.

개표가 98% 진행된 11일 오전 4시 30분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격전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부산·경남 등 영남권 격전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했다.

국민의힘 지역구는 90석으로, 지난 총선(84석)보다 다소 늘었지만, 민주당에 견주기는 어려운 규모다.

이밖에 새로운미래(세종갑), 개혁신당(경기 화성을), 진보당(울산 북구)이 각각 1곳을 확보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약 87% 개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7.41%로 가장 많이 득표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26.40%, 조국혁신당 23.83%, 개혁신당 3.51%다.

비례대표 당선권은 국민의미래 19석, 민주연합 13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으로 각각 지상과 3사 시스템이 예측했다.

민주당(161석)과 민주연합(13석), 여기에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까지 더하면 191석에 달하는 '반윤 거야(反尹 巨野)가 탄생하게 된다. 이념 구도로 보면 188석의 범진보좌파 연합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개헌선(200석)을 내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결과'는 피했지만,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 동안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됐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쳐

180석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03석, 무소속을 합쳐 107석을 얻는데 그치면서 완패한 바 있다.

여당의 참패, 야당의 압승은 임기 3년여를 남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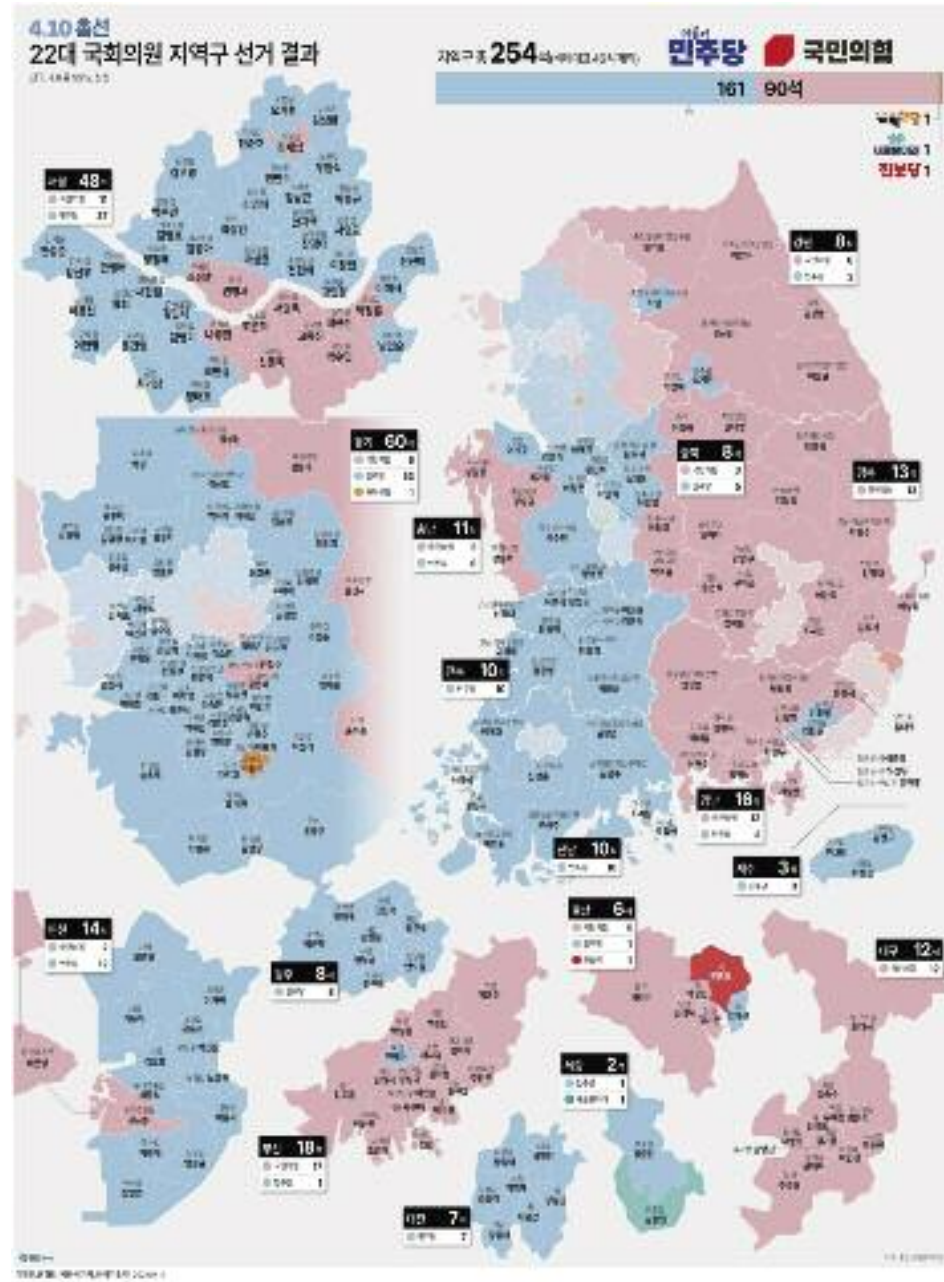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고,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도 대대적인 변화를 받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과 후보들의 자질을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

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세지면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등에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 일부 세력 및 군소 야당 등과 손을 잡고 20석을 확보, 제3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민의힘이 받는 압박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의 책임론을 놓고 당정 관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도 일 수 있다.



▶▶ MFA 에서 나를 만나자 ▶▶ 봄 이벤트

▶ 예술 ▶ 프로그램 ▶ 영화 ▶ 커뮤니티 ▶ 예술 ▶ 프로그램 ▶ 영화 ▶ 커뮤니티

영화

위키드 퀴어: 보스턴의 LGBTQ+영화제

▶ 4/12-4/14



프로그램

4월 방학 주간

▶ 4/17-4/20

특별 이벤트

아트인블룸

▶ 4/26-4/28



MFA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Wicked Queer: Boston's LGBTQ+ Film Festival still from Queen Tut (2023), by Reem Marai.

▶ 방문은 mfa.org에서 시작하세요



국제결혼가정선교회 연례 모금 만찬 파티에 초대합니다

FUNDRAISING DINNER & DANCE HOSTED BY BOSTON CHAPTER



DATE : APRIL 27, 2024 (SAT) 6PM

**FRANCO AMERICAN CLUB
W Prescott St. Westford, MA 01886**

TICKET: \$80.00 PER PERSON

평

Contact: 603.706.0419 / 978.407.7554

"평화의 땅, 평화의집 쉼터 구축과 2세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국제결혼가정선교회 전국연합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ultural Family Mission

BOSTON CHAPTER
www.naicfm.org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84) 헛된 주식시장 예측

지난 1년간 주식시장(S&P 500)이 약 30% 상승했다. 이렇게 올라간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투자자 마음이 갈팡질팡한다. 주위에 주식투자자도 돈 벌었다는 소식도 자주 접하는데 본인만 손해보는 것 같고 투자하자니 주식시장이 폭락 망하는 것이 아니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투자자 대부분은 주식 예측에 귀를 기울인다. 나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기 전 주식시장 향방을 알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투자자의 간절한 마음의 보답(?)으로 금융회사는 주식시장 예측을 끊임없이 발표한다.

대형 금융회사인 골드먼 삭스(Goldman Sachs)는 2024년 말에 현재 약 5,200에서 주식시장이 6,000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바클레이스(Barclays) 주식 전략 팀은 6,050으로 예측하고 오픈하이머(Oppenheimer)는 5,500으로 예측한다. 코스틴(Costin and co)은 6,000으로 예측하는 이유가 현재의 투자자는 기업의 이익에 집중하고 인공지능 기

술의 기대로 2021년에 기술주 대폭락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미국 대형 금융회사인 제피모건(JPMorgan)의 회장(Jamie Dimon)은 '허리케인 이 미국 경제를 덮치다' 고 2022년 중순에 강력히 경고했다. 대형 헤지펀드사인 브리지워터(Bridgewater)의 대표(Ray Dalio)도 경제적 고통의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2023년 경고했다. 여기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도 경제 침체기(Recession)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암울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작년 주식시장은 24% 상승했고 새해 들어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주식시장 6,000을 예측한 골드먼 삭스는 기술주 주식이 기대에 어긋나면 4,500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금융회사 더블라인(Doubleline Capital)대표 건들라크는 2024년 주식시장이 3,200으로 폭락한다고 예측했지만, 반대로 주식시장이 급등했다. 월 스트리트지는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까

지 답변이 없다고 한다.

일반 투자자는 미래 예측, 특히 주식시장 예측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 많은 사람, 특히 전문가라는 사람도 주식시장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피델리티에서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며 장기간 높은 수익률을 형성했던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Peter Lynch)는 "주식시장 폭락을 준비하거나 폭락을 예측해서 투자하면 주식시장 폭락 자체로 잃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손실"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1950년부터 2023년까지 최고점을 1,200이나 기록했다. 매년 평균 17% 최고점을 기록했으며, 이것은 평균 20일 마다 최고점을 기록한 것이다. 주식시장이 물론 하락 혹은 폭락한 적도 있지만 결국에는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시장 수익률도 지난 5년 연평균 14.68%, 10년은 12.02%, 20년은 9.69%, 그리고 30년은 10.04%,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1.13%를 기록했다. 이런 이

유로 전문가도 맞추지 못하는 주식시장 예측을 멀리하고 꾸준히 장기투자 하면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평균 수익률 10%란 복리도 \$10만 달러 투자가 7.2년 후 \$20만 달러, 7.2년 후 \$40만 달러, 그리고 약 23년 후에는 \$80만 달러로 불어나는 높은 수익률이다.

미국에서 화폐 통화와 이자율 등을 직접 조절하며 주식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연준 버냉키(Fed chairman Ben Bernanke)는 고별사에서 '과거로부터 배운 여러 가지 중에서 으뜸인 것은 미래를 예측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If the experience of the past few years teaches us anything, it is that we should be cautious in our forecasts)' 라고 언급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노후대책과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은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되는 긴 세월이다.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내 돈이 불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주식 시장 역사가 분명 보여준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24)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였다. 그들은 태자의 신분이기도 했지만, 미생은 용모가 수려하고 달변에다 춤까지 잘 추었으니, 남도南桃(유화들이 기거하는 지역/장소로 유추된다)로 갈 때마다 목숨을 바치겠다는 유화들이 천백을 넘었다고 화랑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후일 미생은 처첩이 수 없이 많아 아들만 백 여명이 되어 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왕경에는 당두의 처가 천하제일의 미색이라는 풍문이 나돌았다. 그 소문은 미생의 귀에도 들어갔고, 여색이라면 뒤지지 않았던 미생은 동륜태자를 안내하여 당두의 집으로 갔다. 미생의 '중매' 로 동륜태자는 그날 당두의 아내를 품었다.

그후 곧(572년3월) 동륜태자는 부왕의 후궁인 보명궁을 홀로 월담하다가 개에게 물려서 죽었다. 갑자기 태자가 죽자 태자 자리는 차남 금륜이 이었지만, 여색의 자리는 미생의 처가 되었다. 마침내 미생은 당두의 처를 불러 첩으로 삼으려 하였다. 이에 당두는 미실을 찾아가 호소하였고, 미실의 호통으로 미생은 당두의 처를 돌려 보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미생을 잊지 못하고 혼자 스스로 도망하여 미생에게로 왔다. 미생은 당두의 처를 타일러 돌려 보냈다. 그리고 또 다시 당두가 미실을 찾아갈까 염려가 되어 조주祖主(삼국사기 권38, 직관상에 집사성執事省은 본래 품주稟主 혹은 조주祖主라고 기록되어 있다)에 천거하여 발탁하였다.

이에 당두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크게 감동

하여 아내를 미생에게 바치려 했다. 그러자 미생은 미실의 명이 있었기에 그녀를 취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 무렵부터 미생의 인품이 조금씩이나마 향기를 내기 시작한 것 같다.

한편 당두는 졸지에 요직에 발탁되었으니 그때부터 미생을 중심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당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생이 색만 밝힌다고들 하지만, 자신이 겪어본 미생은 효도와 우애가 천하제일이라고 말하였다. 후일 미생이 조부調府에 들어가면서 당두도 함께 데리고 갔다. 당두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재정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진평왕은 조부의 관리들을 모아 칭찬하며 하사주를 내렸다. 이때 미생은 모든 공을 당두에게로 돌리며 더욱 성숙된 인품의 일면을 보였다. 그러자 진평왕은 당두를 대나마(10등급)로 특진 시켰고, 조부의 우경右卿으로 임명하였다. 위의 서술은 572년 경부터 590년 경에 일어난 사건들을 간단히 압축한 것이다.

조부調府는 진평왕6년인 584년에 설치했는데, 진덕여왕5년인 651년에 영수 2인을 두었으며, 조부의 경卿은 2인이었는데, 문무왕 15년인 675년에 1인을 더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조부의 경이 될 수 있는 관위는 병부대감 급이며, 병부대감은 00에서 아찬까지로 나온다(아찬은 6등급). 병부대감이 될 수 있는 하한 관위의 기록이 탈락되었는데, 집사성의 차관인 전대등의 관등이 내마에서 아찬까지인 것으로 보아, 병부대감의 하한 관

위도 나마였다고 본다(이종욱,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 소나무 160쪽). 신라에서 진평왕 이전에는 나라 재정에 관한 업무를 품주가 맡았는데, 나라의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관부와 관직을 체계화 하게 되었고, 584년에 조세 등 모든 재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인 조부를 세웠다. 미생은 풍월주의위를 마치고 조부의 영이 되면서 당두를 중요한 직책에 임명하여 나라 재정을 크게 안정시켰다.

한편 천하제일인 당두의 처는 이미 미생의 첩이 되어 있었고, 그간 미생의 아들 셋을 낳았다.

그래서 600년 초 무렵, 왕성의 거리에는 이런 노래가 유행하였다고 한다.

〈마누라를 바쳐 부자가 되고 일곱 아들 모두가 말을 탄다네.

딸을 바쳐 가난해져 세 아들이 모두 배움을 입었네.〉

마누라를 바쳐 부자가 된 것은 당두를 일컬음이고, 딸을 바쳐 가난해진 것은 대남보를 말함이다. 대남보는 김용춘(13세 풍월주, 김춘추의 아버지)이 풍월주로 재임할때 그에게 딸과 재산을 바쳐 섬겼지만, 결국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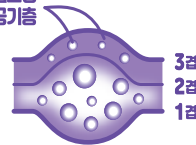
APR. 11th - APR. 18th, 2024

Available at H Mart Burlington & Quincy stores



보들보들 3겹화장지
SOFT 3-PLY
PREMIUM TISSUE

엠보싱
공기층



양면더블 데코엠보싱
DOUBLE-SIDED
EMBOSSING



100% 천연펄프
NATURAL PULP



다겹롤타입 화장지
HIGH ABSORBENCY
AND CUSHIONING

HELLO HOME[®]
**SOFT ROLL
TISSUE**

~~Reg. \$19.99~~

\$12.99

30 ROLLS/PKG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Participation limited to select stores. Please verify with your local store prior to visi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미국부동산: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지난 칼럼에서 말한것 처럼 오늘은 미국부동산에 취득세/보유세/양도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다.

취득세(Acquisition Tax) - 부동산을 구매 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어떤 분이 취득세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알고 보니 한국은 취득세가 많다는걸 알게 되었다. 미국은 취득세는 없다. 거래 비용이 있다. 거래 비용은 변호사비, Recording fee, Document fee, Title search fee, 등등

0.5% - 0.8%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Condominium인 경우 관리비를 미리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처음 내야 하는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날수 있다. 그리고 용자를 할 경우에 은행에 내야 하는 비용들도 생각해 야 한다. 이렇게 생기는 비용들이 있지 취득 세는 없다.

보유세(Property Tax) - 흔히들 재산세라고 말한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때 내는 세금이다. 지난 칼럼에서 정확히 지역마다 해당되는

보유세에 대해서 설명했다. 대강 지역마다 0.249% 에서 2.49% 를 부동산 보유세로 내야 한다. 같은 주라도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매사추세츠내 보유세는 속해 있는타운또 는 시에서 정한다.

양도세(Transfer Tax) -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내는 세금이다. 여기에는 얼마나 매각을 할 때 이익(양도차액)을 보았는지가 중요한데 본인이 사는집(거주용) 영어로는 Primary Residence일 경우에는 2년이상 살았으면 이

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사정이 있어서 렌트를 주었다고 해도 지난 5년중에 2년동안 이집에 살았다면 이익(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즉 거주용 주택은 지난 5년동안 2년만 이집에 살았다면 이익(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은 없다. 지역마다 집 문서(Deed)를 등록하기 위해 내야 하는 Recording stamp fee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걸 누가 내는지는 지역마다 다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4월 14일 - 4월 20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p> <p>● 운수: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생활 속 여러 면에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변화가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 한번 시도해보세요. ● 금전: 매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많아지니 여러 가지 부담감에서 벗어납니다. ● 애정: 생각지도 않은 즐거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소개를 받는 자리는 마다하지 말고 꼭 만나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4, 19일 길일. 15, 16일 주의.</p>	<p>소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p> <p>● 운수: 말을 전하려면 토씨 하나 바꾸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세요. 잘못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뭔가 조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 애정: 누구든지 자신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자신의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97, 85, 73, 61, 49, 37년생은 15, 18일 길일. 16, 19일 주의.</p>	<p>범띠 크게 기지개를 펴고</p> <p>● 운수: 새우잠을 자는 형상처럼 잔뜩 움츠렸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크게 기지개를 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전: 자산을 늘릴 좋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언젠가 뿌려놓았던 씨앗이 귀한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애정: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6, 20일 길일. 14, 17일 주의.</p>
<p>토끼띠 기쁘고 행복한 시간으로</p> <p>● 운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하게 보낼 것입니다. ● 금전: 원하던 것을 원하는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에서도 유리한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모처럼 집안에 온기가 듭니다. 함께 웃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7, 20일 길일. 15, 18일 주의.</p>	<p>용띠 감사하는 마음으로</p> <p>● 운수: 자신이 마음먹고 생각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두루두루 살피고 베푸는 여유도 생깁니다. 자그마한 성의 표시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아끼고 아끼던 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사랑 고백을 해보세요. 서로의 마음이 합쳐질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4, 18일 길일. 16, 19일 주의.</p>	<p>뱀띠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p> <p>● 운수: 자신이 쓰고 있는 말을 한 번 살펴보세요. 말이 씨가 되는 것이니 현재 상황이 힘들더라도 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합니다. ● 금전: 이래저래 나가야 할 것이 많으니 돈 문제로 잔신경을 쓰게 되겠습니다. ● 애정: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편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5, 19일 길일. 17, 20일 주의.</p>
<p>말띠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p> <p>● 운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간 거리만큼 돌아나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되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손해 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만 듣거나 광고에 현혹되어 사들이면 금방 후회하게 되니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사야 할 것입니다. ● 애정: 걸으로는 관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아니니 표정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6, 20일 길일. 18, 19일 주의.</p>	<p>양띠 냉철하게 살펴보고</p> <p>● 운수: 귀가 얇아져서 이 치료 저 치료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상태가 악화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 금전: 현금 흐름을 잘 살펴봐도록 하세요. 자신의 자금 상태를 냉철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게 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하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양보하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17, 20일 길일. 16, 19일 주의.</p>	<p>원숭이띠 밝고 환하게 웃는</p> <p>● 운수: 어디를 가든지 밝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대하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편해지니 일의 능률이 오를 것입니다. ● 금전: 나가는 것이 있어도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서 충분히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 ● 애정: 기대해도 될 만한 상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싱글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위를 잘 살펴보면 운명의 짝이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5, 18일 길일. 17, 20일 주의.</p>
<p>닭띠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p> <p>● 운수: 자신이 보고 듣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넓디넓은 세상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금전: 아작은 안심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다 된 일이라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부부가 화복하면 자녀에게 어떤 영향제보다 더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4, 19일 길일. 18, 20일 주의.</p>	<p>개띠 훌훌 털어버려야</p> <p>● 운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세상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조금만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 금전: 돈에 연연하다가는 도리어 병이 되니 훌훌 털어버리세요. ● 애정: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나 진심으로 한 말이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왜곡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4, 20일 길일. 18, 19일 주의.</p>	<p>돼지띠 미리 대비를 해두는</p> <p>● 운수: 자신만 부족하고 자신만 처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자기만의 처한 상황이 있는 것이니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금전: 계획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자꾸 지연되기 쉽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간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8, 19일 길일. 14, 20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즈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연상호 감독 "기생수, 공존에 대한 이야기 ...시즌2 구상 있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원작 만화 '기생수'는 인간과 다른 생명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사실 '기생한다'는 말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다른 말일 수도 있겠죠. 그 뉘앙스의 차이를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했어요."

영화 '부산행'(2016)과 드라마 '지옥'(2021)의 연상호 감독이 1990년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만화 '기생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기생수: 더 그레이'로 돌아왔다.

연 감독은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생수: 더 그레이' 공개를 기념해 기자들을 만나 "주인공 수인과 그의 몸에 기생하게 된 '하이디'가 상대와의 공존을 인정하는 방식이 극적으로 그려질 길 바랐다"고 연출 의도를 설명했다.

원작 만화 '기생수'는 어느 날 지구에 떨어진 의문의 기생 생물들이 인간의 뇌에 침입해 육체를 지배하고 다른 인간들을 포식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다. '기생수: 더 그레이'는 원작의 설정을 그대로 빌려오면서 한국을 배경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스피노프(파생작)다.

괴한의 공격에 크게 다친 주인공 정수인(전소니 분)에게 기생수 '하이디'가 침투하는데, 다친 수인을 살리는 데 집중하느라 하이디는 수인의 몸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서로 한 몸에 공존하게 된다.

연 감독은 "서로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는 수인과 하이디가 차츰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담았다"고 연출 의도를 설명했다.

감독의 설명처럼 수인과 하이디는 원하던 원치 않던 서로 공존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는다.



'기생수: 더 그레이'는 지난 5일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 순위를 분석하는 플릭스패트론에 따르면 '기생수: 더 그레이'는 지난 7일 넷플릭스 세계 1위에 올랐다.

연 감독은 다른 지역보다도 일본에서의 반응이 어떨지 우려했다고 한다. 원작을 만든 나라이고 원작 팬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려와 달리 '기생수: 더 그레이'는 일본에서도 지난 6·7일 2위를 기록했다.

연 감독은 "일본에서 2천만 부 넘게 팔린 만화가 '기생수'인 만큼 그들이 드라

마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했다"며 "원작의 세계관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다룬 스피노프라서 좋게 봐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드라마가 원작 만화를 그대로 답습한 것은 아니다. 기생수가 오른손에 침투해 주인공과 대화를 주고받는 원작과 달리 드라마 속 하이디는 수인의 얼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서로 대화하지 못하는 점 등은 차이가 있다.

연 감독은 "원작 내용을 현지화한 것이 아니라 원작 만화에서 다루는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르세라핌, 미국프로농구 '프렌즈 오브 더 NBA' 발탁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르세라핌이 미국프로농구(NBA)에서 홍보대사의 일종인 '프렌즈 오브 더 NBA' (Friends of the NBA)로 발탁됐다고 소속사 쏘스뮤직이 5일 밝혔다.

NBA 사무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4월 NBA 앰버서더(홍보대사)로 선정된 방탄소년단(BTS) 슈가에 이어 르세라핌이 우리와 함께하게 됐다"며 "NBA와 공식 협업 관계를 맺은 K팝 아티스트는 슈가와 르세라핌뿐"이라고 전했다.

'프렌즈 오브 더 NBA'는 NBA가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하고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명한 흑

은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는 프로그램이다. 르세라핌은 앞으로 NBA 경기와 이벤트 참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독점 콘텐츠 협업, 리그 홍보 참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김채원, 사쿠라, 허윤진, 카즈하, 홍은채 다섯 멤버는 NBA 팬으로서의 경험을 SNS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르세라핌은 "NBA와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지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NBA 경기를 직접 관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전 세계 NBA 팬들과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tsl@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당신은 자석이다

당신은 자석이다. 작가 쭈쭈의 글을 읽다 가내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었다. 참으로 나 역시도 그렇다고 생각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리에서 우연히 그 누군가를 만났더라도 밝고 환한 사람을 만나면 나 역시도 밝은 표정과 웃음을 짓게 된다. 그러나 어두운 낯빛과 우울한 표정의 사람을 만나면 반사된 거울처럼 나도 모르게 무표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될 때가 있다.

"당신은 자석이다. 스스로 행복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향해 충만한 선의를 갖고 있으면, 아름다운 일들이 자연히 당신에게 달라붙는다. 그러나 늘 비관적이고, 우울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향해 적대감과 원망만 뿜어내면 부정적인 일들이 연달아 떨어 온다. 왜냐하면 자신이 뿜어내는 아우라가 같은 성질의 일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한 일이, 불행한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행운과 악운은 모두 당신이 당신 마음의 자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비밀이다."

."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이 바쁘고 빠른 시대를 살고 있기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겨를 없이 지나간다. 바쁜 중에 시간을 내어 그 누군가를 만났는데 얼굴 표정이 굳어 있거나 분위기 흐리는 말만 반복해 쏟아놓는다면, 그다음의 만남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까닭이다. 밝고 환한 사람을 만나면 무엇인가 궁금해지고 신선한 느낌에 자주 만나고 싶어진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밝은 에너지를 받아오는 이유이다. 그렇다, 우리는 이렇듯 기분 좋은 사람에게는 곁에 친구들이 많을 눈치챈다.

여행을 좋아하는 나는 함께 여행하는 이들에게서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많이 배운다. 물론, 웬만하면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는 나의 태도도 있을 테지만, 내 생각과 상관없이 어찌 그리도 똑똑하고, 아무지고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고, 따뜻하고, 배려와 사랑이 넘쳐나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

면 늘 감사가 차오르는 것이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어찌 그리도 각각 사람들의 역할과 책감이 색다른지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매일 배움며 산다. 이렇듯 나와 다름이 있어 모두가 조화로워 더욱 더 아름다운 것이다.

친구들과 만나도 밝은 친구에게 더욱 신바람이 일렁이게 마련이다. 화들짝 거리며 이런저런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기 그지없다. 그러나 조용한 친구량은 소곤소곤 이야기거리가 많아 또한 좋다. 나 역시도 밝은 성격이라 조용한 친구나 선배 언니들이 좋아하는 편이다. 뉴욕에는 40년이나 된 오랜 세월 친하게 지내는 선배 언니가 산다. 오랜만에 한 번씩 마주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고 밤을 새우고 오곤 한다. 산을 함께 오르는 친구 중에도 조용한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곁에 좋은 친구들이 많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감사하고 축복받은 삶이다. 타고난 성품이 밝은 편이라면 하늘이 주신 아주 특별

한 선물이다. 우리가 더 나아가 신앙인이라면 그 밝음을 나 혼자만 누리면 욕심쟁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 밝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더욱더 밝은 만남과 더 나아가 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는 모두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에 놓여 있다. 이렇듯 알게 모르게 다른 이의 도움에 의해 낯설고 씨실처럼 엮이고 엮여져서 살아가는 것이다.

요즘처럼 팬데믹으로 사회활동이 제약을 받고 바깥 활동이 적으니 움츠러들고 외로움으로 우울해지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은가. 보고 싶은 가족들과의 나눔이 줄어들고 소원해지는 느낌에 서운함이 엄습하는 가족들 간의 틈이 생기는 것이다. 이럴 때 그 누구보다도 밝은 성격의 가족이 있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밝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가족들에게 전화라도 걸어 안부를 물을 수 있다면, 그 외로움이 나 우울함 그리고 불안과 초조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시작하는 봄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봄의 문턱이다. 세금보고, 3월이면 해야 하는 일이다. 해마다 봄이면 거를 수없는 연례행사인 게다. 보고를 마쳐야 한해가 온전히 간결 실감한다. 진정 봄이 시작되는데 보스톤에선 꽃이 피기엔 아직 이르다.

4월 15일이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패트리엇 데이와 겹친다. 나무는 세금보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해 봄이면 나무가 하는 일이 따로 있다. 지난 겨우내내 곱게 품

었던 싹을 틔우는 일이다. 그리고 연이어 꽃을 피운다. 우리집 마당 개나리도 그러하다.

꽃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꽃은 열매를 위해 피는 거다.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싹이 나서 틔우고 자라면 꽃을 피운다. 봄이면 나무가 하는 일이다. 개나리도 노란 꽃이 피는데, 불적마다 유난스럽다. 광화문 글판이 바뀌었다. 새봄을 맞는 응원가라 했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났다고도 했다.

그대가 밀어 올린 꽃줄기 끝에서
그대가 피는 것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 떨어지는지

(김선우, 「내 몸속에 잠든 이 누구인가 중에서」)

밀려 올라선 꽃망울을 보았을 게다. 긴겨울을 견디어 온 꽃망울 향한 찬사이다. 반가워 오히려 떨리는 마음을 주체 할 수없다고 했다. 곧 꽃망울은 꽃이 될터이고,

꽃은 벌과 나비를 불러 모으겠지. 연이어 여름을 거쳐 가을이면 열매를 맺으리라.

무화과無花果란게 있다. 이름도 범상치 않은데,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이름풀이이다. 과일은 열매이며 씨일텐데, 꽃이 없이 열매를 맺을 수있을 것인가. 자연법칙에 어긋난다. 무화과 꽃과 씨는 몸속에 품고 있단다. 참 별스럽다.

꽃은 피었으면 져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있다. 나무는 꽃

을 버려야 열매를 얻는거다. 생성과 소멸의 반복이며 개화와 낙화의 순환일터. 더불어 과정은 역사가 되고, 전통이 되며, 추억이 될 것인데, 이런 걸 사랑이라 한다. (김수영, 거대한 뿌리에서)

자연에서 배우는 세상아치인데, 해마다 봄이면 새롭다. 세금보고는 하셨나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가 13:28)

한류를 넘어 역사를 마주하다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미주 추념식

Beyond Hallyu (Korean Wave)
Commemorating the 76th Anniversary of the Jeju April 3rd Incident and Exploring Its Collective Trauma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미주 추념식에 동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4년 4월 27일 (토) 오후 5시**
장소: **보스턴 한인 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입장료: 무료 (누구나 참여 가능)

행사 일정

- 추모식 (오후 5시 ~ 6시)
- 리셉션 디너
(RSVP 방법: 하단 QR코드 스캔, 또는 이메일 info@waldenkorea.org 전화 617-849-8433) (오후 6시)
-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동백꽃 마술 & 공예 체험
- 동백꽃 수록화 전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참여)

제주43사건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간 지속된 3만 여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낸 한국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매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제주 4·3희생자추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제76회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배우고, 희생자들을 기리며, 집단적 트라우마에 대한 공감, 기억, 치유의 중요성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는 영어로 진행하나 한국어 안내가 준비되어 있다. 행사 후 리셉션 디너가 예정되어 있으며 RSVP를 기다립니다.

주최: 재미 제주4·3기념사업회·유족회
주관: 월드 코리아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국제네트워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을 찾습니다.

제주4·3사건 고등학생 에세이 공모전 (마감 5월 30일)

Beyond Hallyu - Memory and Justice: Jeju 4.3 - Essay Contest

Are you interested in exploring modern Korean history? Join us for a one-hour, free event remembering the Jeju 4.3 Incident at the Korean Church in Brookline on Saturday, April 27th, at 5pm. Following this solemn remembrance, we encourage you to share your thoughts and insights by participating in our essay contest.

Deadline: May 30th

Rewards: All participants receive a special memento. The top 3 essays win additional prizes and scholarships.
Get details: Visit the information desk on event day (April 27).

Essay Guidelines - Your essay should address the following areas:

Unique Reflection (Essential):

Join us at the Boston Korean Church in Brookline (32 Harvard Ave) on April 27th, at 5 p.m. This free event includes dinner and is family-friendly. It's more than a commemorative; it's a chance to blend collective memories with your insights on the Jeju April 3rd Incident. For details, visit www.waldenkorea.org.

Collective Trauma Impact: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llective trauma, using academic research to support your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Consider how the Jeju April 3rd Incident influences today's society, attitudes, and reconciliation efforts.

Formatting:

• Maximum 1,000 words in English • Double-spaced • 10-point Times New Roman font

For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info@waldenkorea.org

www.43jeju.com (한글) / www.WaldenKorea.org (English) / email: info@WaldenKorea.org / Tel: 617-849-8433

RSVP / Apply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서울부민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허리견인 치료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허리 디스크로 다리가 저릴 때 효과 보는 방법인 허리견인 치료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서울부민병원은 상수 척추내시경센터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견인치료는 허리를 당기는 치료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으로 몸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허리디스크가 노화나 반복적인 외상으로 약해지면서 찢어지고 수핵이 척추신경을 누르는 병이 허리디스크 탈출증이다. 견인치료는 허리 디스크로 다리가 저릴 때 효과를 보는 방법이다. 고무 튜브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볼록해지고 반대로 위아래로 당기면 볼록해진 부분이 다시 들어가는 것이 견인치료의 원리다. 허리디스크도 체중에 의해 눌리면 뒤로 밀려나오고 견인을 하게 되면 신경을 덜 누르게 되어 통증이 감소된다. 많이 알려진 견인방법으로는 거꾸리가 있다. 공원에서 헬스장에 가면 다리를 고정하고 머리를 땅으로 내리는 운동기구 가 거꾸리다. 하지만 거꾸리는 위험하기 때문

에 추천하지 않는데, 공원에서 거꾸리를 하는 도중 발목 힘이 풀리면서 목으로 떨어지고, 목 뼈골절로 사지마비가 된 환자를 봤기 때문이다

거꾸리는 혈압이 높아져 뇌혈관 질환, 안압이 높아지는 녹내장 등이 있는 연세 많은 분들 에게는 더 안 좋을 수 있다. 거꾸리의 견인 효과는 허리가 늘어나는 것 만큼 무릎, 고관절 간격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기에 더 효과적인 견인치료를 찾아야 한다. 병원에서는 허리 보호대를 착용해서 골반과 가슴을 위아래로 당겨주는 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리치료가 끈이나 손으로 견인해주는 도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자가견인법을 소개하려 한다. 병원에 가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견인치료를 할 수 있다. '책상 견인'은 책상, 싱크대, 식탁, 탁자 등에 양손을 받친다. 팔 힘으로 버티면서 무릎을 구부려 엉덩이, 다리 무게로 허리가 늘어나게 한다. 팔, 어깨에는 힘을 많이 주면서 등, 허리, 허벅지에는 힘을 빼고 5초 정도 매달린다. 철봉에 매달리는 것도 견인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다리를 구부려 하지 무게로 허리가 견인 되게 할 수도 있다. 철봉 매달리기는 거

꾸리보다는 안전하지만, 거꾸리가 무릎, 고관절이 허리보다 더 많이 늘어났듯이, 철봉 매달리기는 팔꿈치, 어깨가 허리보다 더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의자 견인'은 팔걸이가 있는 의자가 필요하다. 엉덩이가 의자에서 뜰 수 있도록 양손으로 의자 팔걸이 부분을 받치고, 허리, 골반의 힘을 최대한 빼서 허리가 견인 되도록 한다. 골반아래의 하지 무게로 배짱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분리되어 서로 당겨지는 효과가 견인이다. '의자에 발 올리고 견인'은, 바닥에 누워 의자에 다리를 올린다. 양손으로 허벅지를 지그시 밀어서 허리가 늘어나게 합니다. 허반신이 아래로 밀려나면서 허리가 견인된다. '봉 견인법'은 밑대 등의 긴 봉이 필요하다. 집안 방문에 걸쳐서 무릎을 세워서 놓고, 문 옆에 봉을 걸치고 양손으로 민다. 상체가 위로 움직일 때 엉덩이, 하지는 지면 마찰에 의해 그 자리에 있게 되고 허리 척추뼈가 벌어지게 된다. 견인이 잘되면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림이 좋아진다. 체중에 의해 디스크가 눌리면 저림 증상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 견인치료 후에는 허리 근육을 키워야 한다. 허리 근육이 발달하면 디스크로 가는 충격도 흡수하고, 견인효과도 오랫동안 유지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허리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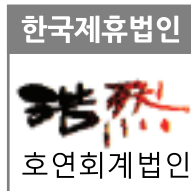
은 걷기이고 그외에 허리를 펴는 동작의 근력 강화운동들이 허리 코어근육을 강화하는데 좋다.

"허리견인 치료"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북한의 인권" 북한이탈주민 통일 강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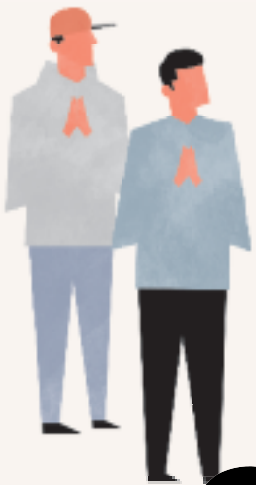
일시: 2024년 4월 14일 (일) 오후 4시~6시
 장소: ECC Chapel, 보스톤 한인교회
 32 Havard St, Brookline MA 02445

프리덤 스피커스 인터네셔널 (FSI) 북한 인권 단체 대표 Casey Latugue Jr 와 북한 이탈 주민으로부터 듣는 생생한 북한 인권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지역 사회 한인 동포들을 초청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 협의회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TBO play



한국방송

어떻게 보세요?

지금보시는 한국방송 서비스 보다 저렴하게!

최근 1개월치 빌을 보내주시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전미주 합법 한국방송 서비스 Since 2009



티보 플레이로 보세요! ▼

문의전화

855-826-4636
855-TBO-INFO

2024 **성령 부흥회**
새로운
시 + 작

4.26/27/28



글로벌 감리교회
강사 | Rev. Dr. 조영진 명예 감독

4.26 (금) 저녁 7:00 인도하심 따라서 행 16:6-10

4.27 (토) 저녁 7:00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행 27:20-26

4.28 (일) 오후 2:00 남겨야 할 삶의 자취 막 14:3-9



동북부 GMC 연회
최형용 감리사



보스턴 새소망 GMC
이장규 담임목사



커네티컷 중앙 GMC
김정환 담임목사

장소 | 보스턴 새소망 GMC 예배당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 **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 **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 **코리아**
www.bostonkorea.com